

프랑스 경제와 노동시장 : 2020년 현황 및 2021년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박사과정)

■ 머리말

2020년 1월 프랑스 내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두 차례의 봉쇄령을 포함한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2만 명 이상을 기록¹⁾하며 보건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그라들지 않는 보건위기는 경제활동에도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책과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이미 살펴본 바 있다.²⁾ 이 글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경제상황과 2021년 경기회복 전망을 국내총생산, 고용지표, 그리고 가계지출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산업별로 살펴본다.³⁾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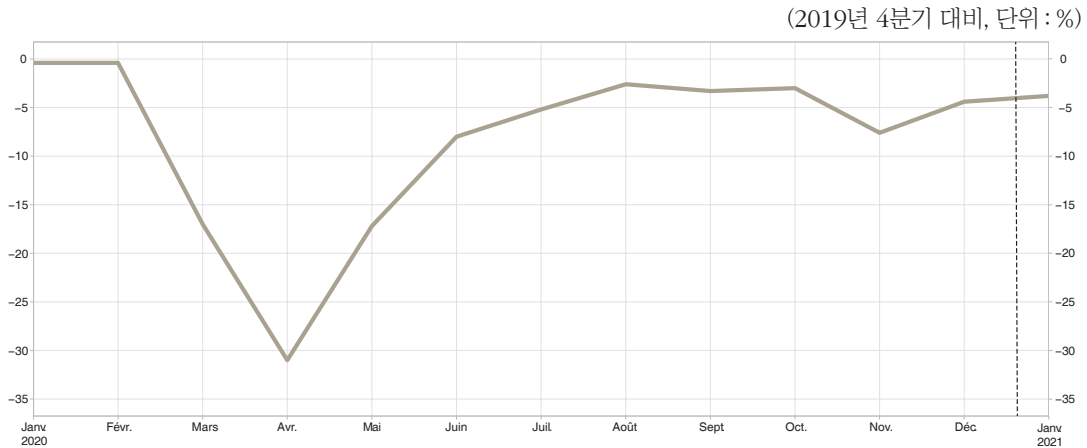
2020년 월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치는 1949년 집계기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평균 8.3% 하락했다. 2020년 10월에는 경제활동이 비교적 안정

1) 작성일(2021년 2월 25일) 기준 25,403명, <http://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

2) 이태훈(2020),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18(5), pp.82~88; 이태훈(2020), 「코로나19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18(7), pp.90~98.

3) 2020년도 경제상황 정리는 INSEE(2020)와 INSEE(2021), 경제전망 부분은 OFCE(2020)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그림 1] 2020~2021년 월별 GDP 성장률 추정치와 전망치



자료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되어 위기 이전 대비 3% 감소를 기록했으나 10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비필수 사업장에 적용된 폐쇄조치와 11월 27일까지의 여행 제한조치로 인해 이후 경제활동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봉쇄(2020년 3월 17일~5월 10일)보다 느슨하게 적용된 2차 봉쇄로 인해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는 소폭(2019년 4분기 대비 11월 -8%, 12월 -4%) 감소했다(그림 1 참조).

2020년 4분기 산업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보건위기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인 운수 및 창고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했다(각각 2019년 4분기 대비 -15%, -37%). 기업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6%를 기록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률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29%).

2021년 현재에도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방역조치가 1월 31일부로 강화(대형 쇼핑센터의 비식품 매장 폐쇄 등)되었지만 보건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존 조치가 연장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 수준의 방역조치가 1분기 말까지 유지된다면 일부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제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2020년 4분기에 비해

약간 나은 GDP 성장률(+1.5%)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1 시나리오 1 참조). 그러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경기회복이 중단되거나 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GDP 성장률이 더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월의 봉쇄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조치가 1개월 동안 적용(시나리오2)될 경우, GDP 성장률은 0%로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같은 조치가 7주간 적용될 경우(시나리오 3) GDP는 1분기에 약 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bservatoire français des conjonctures économiques: OFCE)는 더 나아가 2021년 전체에 대해 내수변화를 기반으로 산업/분기별 GDP 변화를 추산했다. 2021년에 보건위기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 GDP 성장률은 2021년 1분기(2019년 말 대비) -5%를 기록, 2021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시나리오별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

	2020 1분기	2020 2분기	2020 3분기	2020 4분기	2021년 1분기		
					시나리오 1 (1월 현재와 동일)	시나리오 2 (2020년 11월과 같은 봉쇄, 1개월간 지속)	시나리오 3 (2020년 11월과 같은 봉쇄, 7주간 지속)
2019년 4분기 대비 성장률	-5.9	-13.7	18.5	-1.3	1.5	0.0	-1.0
위기 전 (2019년 4분기) 기준 성장률	-5.9	-18.8	-3.7	-5.0	-4.0	-5.0	-6.0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 고용 통계

2020년 상반기 프랑스(해외영토 마요트 지역 제외)의 취업자 수는 2019년 말 대비 69만 7,000명(-2.7%) 감소하여 2017년 초부터 누적되어 왔던 일자리 창출분을 상쇄시켰다. 3월부터 시작된 고용 감소는 산업 부문에 따라 차이를 보인 가운데 건설 부문은 급격한 감소를

<표 2> 2021년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2019년 4분기 대비, 단위: %)

산업별	2021 1분기	2021 2분기	2021 3분기	2021 4분기	2020	2021
농업	-5.0	-3.0	-2.0	-1.0	-4.0	-3.0
제조업	-8.0	-6.0	-5.0	-4.0	-13.0	-6.0
식료품 제조업	-4.0	-2.0	-1.0	0.0	-5.0	-2.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0	-6.0	-4.0	-2.0	-33.0	-5.0
운송장비 제조업	-23.0	-20.0	-18.0	-16.0	-31.0	-19.0
기타 제품 제조업	-9.0	-7.0	-6.0	-5.0	-13.0	-6.0
전기, 하수, 폐기물 처리	-4.0	-3.0	-2.0	-1.0	-9.0	-2.0
건설업	-4.0	-1.0	0.0	1.0	-15.0	-1.0
서비스업	-6.0	-4.0	-3.0	-2.0	-10.0	-4.0
도매 및 소매	-3.0	-1.0	-1.0	0.0	-10.0	-1.0
운수	-12.0	-9.0	-8.0	-7.0	-20.0	-9.0
숙박 및 음식점업	-28.0	-18.0	-13.0	-11.0	-31.0	-17.0
정보통신업	-5.0	-3.0	-3.0	-1.0	-5.0	-3.0
금융 및 보험업	-3.0	-2.0	-1.0	0.0	-5.0	-2.0
부동산업	-1.0	0.0	0.0	1.0	-1.0	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0	-5.0	-4.0	-3.0	-11.0	-4.0
비시장 서비스업	-1.0	0.0	0.0	0.0	-5.0	0.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2.0	-8.0	-5.0	-5.0	-21.0	-7.0
비시장 서비스업	-1.0	0.0	0.0	0.0	-5.0	0.0
합계	-5.0	-3.0	-2.0	-1.0	-10.0	-3.0

자료: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2020).

경험한 반면, 공업 및 서비스업과 비시장 서비스업(대부분의 공무원을 포함)에서는 감소분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건설 부문은 두드러진 반등을 보이며 9월 말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표 3 참조).

산업별 고용 감소분의 차이는 각 산업이 경험한 충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월 말까지 건설업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의 3배에 육박한다.

<표 3> 2020년 산업별 일자리 수 변화율

(2019년 12월말 대비, 단위: %)

	3월 말	6월 말	9월 말
제조업	-3.6	-3.7	-2.4
건설업	-6.2	-2.6	0.3
서비스업	-2.0	-3.6	-2.0
비시장 서비스업	-0.3	-1.1	0.4
합계	-1.9	-2.7	-1.2

주: 계절조정치.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일자리 감소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상반기 사이에 집중되었고 그중 절반(432,000개)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1차 봉쇄기간 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탓으로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145,000개)과 기타 서비스업(-80,000개)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반적으로 고용의 감소세(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평균 -3.1%)는 경제활동의 둔화세(동일한 기간 -18.8%)보다 훨씬 더 완만했다. 이는 4월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부분실업제도의 효과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3분기에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401,000개)(표 4 참조). 그러나 이는 2018년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기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았다(2019년 말 대비 -296,000개). 2분기 연속 감소 후 서비스업(+193,000개)과 제조업(+44,000개)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비시장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또한 증가했는데(+118,000개), 이는 이전 분기에 부분적으로 동결되었던 공무원 채용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업(+47,000개)은 2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0년 4분기는 보건위기가 심화되고 10월 30일부터 발효된 2차 봉쇄조치로 인해 고용지수가 다시금 악화되었다(-301,000개). 경제활동 감소는 봄에 비해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부문,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 동과 고용 사이의 연관성은 지난 봄에 관찰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에서 대규모 부분실업 신청이 있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59

<표 4> 2020년 분기별 일자리 수 변화

(단위: 천 개, %)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19년 4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대비 증가율(%)
농업	-4	-5	0	4	-5	-1.7
제조업	-124	-3	44	-13	-96	-2.8
건설업	-98	56	47	-16	-11	-0.7
서비스업	-245	-187	193	-24	-484	-4.0
운수업	-50	1	23	-15	-40	-2.6
숙박 및 음식점업	-61	-83	57	-113	-201	-17.3
기업서비스	-38	-32	30	-50	-90	-3.1
가계서비스	-40	-40	44	-35	-71	-5.4
비시장 서비스업	-21	-66	118	-31	-1	0.0
합계	-493	-204	401	-301	-597	-2.3

주: 계절조정치.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는 위기 이전 수준 대비 2.3% 감소를 의미한다.

실업률은 3분기에 반등하기 전에 2분기에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1분기 말부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예상치 못한 감소였는데, 이는 1차 봉쇄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구직을 중단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2분기에는 15~64세 인구 중 실직 상태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분기 대비 1.9%p 증가하여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실업률은 0.7%p 하락하여 7.1%를 기록했다. 봉쇄조치가 끝나고 일반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업률은 3분기에 1.9%p 상승한 9.0%를 기록했다. 이는 보건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0.9%p 높은 수치로 해당 기간 동안의 관광 및 문화산업 내 고용 감소를 반영한다. 2차 봉쇄령의 여파는 지난 봄보다 작고 고용이 사실상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률을 추가로 낮추기에 충분할 것이다(표 5 참조). 따라서 실업률은 연말 8.0%로 사실상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상태로 집계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분기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분기와 2021년 말까지의 고용 및 실업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우선 기업별 부분실업제도 신청 규모가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봉쇄정책과 행정마비로

<표 5> 2021년 취업자,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 분기별 평균 전망치

(단위: 천 명, %)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전년대비 변화 (4분기)
취업자	-27	-790	312	-34	-539
실업자	-82	-287	628	-340	-81
경제활동인구	-109	-1077	940	-374	-620
실업률 변동폭	-0.2	-0.8	1.9	-1.0	-0.1
실업률	7.9	7.1	9.0	8.0	

주: 계절조정치.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표 6> 취업자 수 현황 및 전망(2020~2021)

(단위: 천 명)

	2020년 4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4분기
	전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대비	
임금노동자	-287	-790	-793
농업	-3	-8	-15
제조업	-38	-145	-258
건설업	-45	-54	-26
서비스업	-224	-584	-540
비시장 서비스업	23	1	47
자영업자	-49	-90	-31

자료: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2020).

인해 효과적인 구직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불확실한 행동 패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봉쇄가 해제되고 백신 접종의 확대로 팬데믹이 약화되면 2021년 이들은 노동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복귀할 것이다.

2020년 3분기의 반등(일자리 +369,000개) 이후 4분기 고용 전망은 경제활동 감소 및 재봉쇄의 영향으로 다시금 악화되었다. 봉쇄조치의 영향하에 있는 부문(레스토랑, 비필수 사업장 등)은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은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고용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시장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은 정부 지원을 통해 늘어날 것이지만 2021년 취업자 수는 결국 2019년 4분기 대비 79만 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 참조).

■ 가계지출

2차 봉쇄가 시작됨에 따라 2020년 11월 가계지출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15% 낮은 수준까지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나 가공품 소비의 반등에 힘입어 12월에는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하며 2019년도 4분기에 비해 4% 적은 수준에 이르렀다. 2021년 1월에는 방역조치가 강화되고(8시에서 6시로 단축된 통금시간) 겨울 세일이 연기되며 보건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가계지출은 다시 한번 감소하여 위기 전보다 7%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공산품의 소비는 12월의 강한 반등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산업별 가계소비 변화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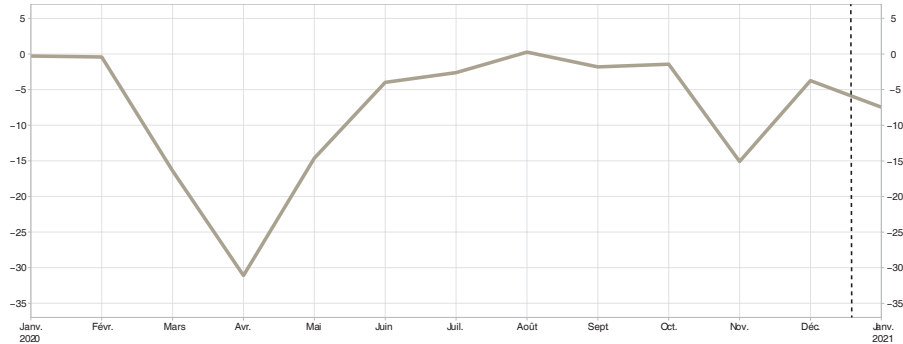
(2019년 4분기 대비, 단위: %)

	비중 (2018 가계소비기준)	2020년 4분기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농업, 임업 및 어업	3.0	-5.6	-3.0	-9.0	-5.0
제조업	44.0	-2.9	3.0	-16.0	4.0
식료품음료 제조업담배 제조업	15.0	1.3	4.0	-2.0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0	-14.4	-4.0	-27.0	-12.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	13.2	13.0	-9.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0	-9.8	-2.0	-19.0	-8.0
기타 제품 제조업	12.0	-5.9	2.0	-33.0	14.0
건설업	2.0	0.7	2.0	0.0	0.0
서비스업	46.0	-13.4	-8.0	-18.0	-4.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0	-4.7	0.0	-11.0	-4.0
운수 및 창고업	3.0	-48.2	-33.0	-58.0	-54.0
숙박 및 음식점업	7.0	-47.1	-27.0	-61.0	-53.0
정보통신업	3.0	-2.8	-2.0	-7.0	0.0
금융 및 보험업	6.0	0.9	1.0	1.0	1.0
부동산업	19.0	1.8	2.0	2.0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8.8	-8.0	-9.0	-10.0
기타 서비스업	4.0	-27.1	-16.0	-43.0	-23.0
비시장 서비스업	5.0	-0.8	2.0	-4.0	0.0
합계	100.0	-6.8	-1.0	-15.0	-4.0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그림 2] 월간 가계지출 추정치와 예상치

(2019년 4분기 대비, 단위: %)



자료 :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서비스업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위기에 맞선 제한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는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분기에 가계소비는 3분기보다 악화되어 2차 봉쇄기간 동안 소비가 감소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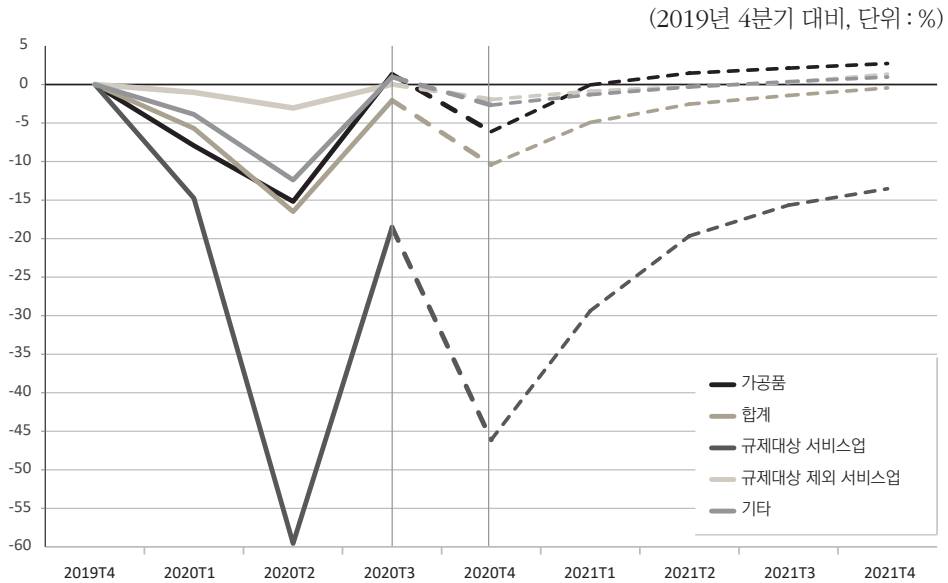
하지만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소비 증가는 예상치(+6%)보다 훨씬 더 높았다(+13%). 건설 작업에 대한 지출도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1%). 기타 서비스업은 4분기에도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은 예상치(-36%)보다 적었다(-27%).

2021년에 가계소비의 변화는 규제 대상이던 서비스업(운수업, 숙박 및 식당업, 기타 서비스업)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의 정도와 방역조치에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최종 소비 수준은 서비스업 소비가 반등하면 2021년 2분기에는 2020년 3분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2021년 말에야 가공품, 규제받지 않은 서비스 및 기타(농업, 건설업, 비시장 서비스 등) 소비에 힘입어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말에 국한된 3차 봉쇄령의 여파는 조치의 범위나 기간 그리고 재택근무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이를 단기적으로

[그림 3] 산업군별 가계소비 수준



자료 :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 2020).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2차 봉쇄령과 지원책의 영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에 누적되어 온 피해가 복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비상조치(부분실업제도 및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지원)들과 1,000
억 유로(약 135조 2,350억 원)에 달하는 중기 복구계획은 강력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수요
와 공급 양 측면에 있어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는 점진적인 회복을 위해 봉쇄조치로 피
해를 입은 사업장을 위한 택스 홀리데이 제도, 부분실업 지원의 국가 부담 증액, 기업 재정 지
원 등을 통한 긴급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건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부분실업
제도와 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줄어나감으로써 기업 간 채용의 재할당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Dauvin et al.(2020), “Évaluation au 11 décembre 2020 de l'impact économique de la pandémie de COVID-19 en France et perspectives pour 2021”, *OFCE Policy brief* 81, 11 décembre.
- INSEE(2021), “Points de conjoncture 2020, Note de Conjoncture du 4 février 2021”,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020129?sommaire=5020131>
- _____(2020), “Points de conjoncture 2020, Note de Conjoncture du 22 décembre 202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5006971?sommaire=4473307>
- OFCE Département analyse et prévision, “Partie II. France: croissance vulnérable. Perspectives 2020-2021 pour l'économie française”, *Revue de l'OFCE*, vol. 168, no. 4, 2020, pp.103-136.
- Pierre Madec et Hervé Péléraux(2021), “L'économie française en 2020-2022 selon le panel des prévisionnistes de l'OFCN”, *OFCE Policy brief* 85, 29 janvier.